

지방조달청 발주 관수 레미콘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광주·전남, 전북, 제주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102억
전북에 39억 7500만원 부과... "지속감시, 사업자 교육 병행"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전남과 전북, 제주지역 레미콘 조합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레미콘 조합에 시장명령과 과징금 10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수 레미콘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요 수요처로 매년 지방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한다. 지방 조달청이 관

할 지역에 있는 레미콘조합 등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지역 공공기관들은 계약된 단가로 레미콘조합 등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는다.

광주·전남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둘러리를 정했다.

레미콘 사업자들은 원거리에 납품하기 어려운 레미콘의 특성상,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입찰 건에

대해서는 낙찰을 희망했지만 관할 지역을 벗어난 입찰 건에 대해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한 조합만 단독 응찰할 경우 해당 입찰 건이 유찰돼 각 조합 입찰담당자들은 유찰을 막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각 조합 입찰담당자들은 입찰을 앞두고 2015년 5월께 연락해 각 분류 입찰에서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다른 조합은 둘러리로 참가해주시기로 합의했다.

낙찰자는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부찰해도 둘러리가 항상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찰해줄 것이라 믿고 낙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부찰했다. 이에 평균 99.98%의 낙찰률을 낙찰 받았다.

전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도 전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자와 둘러리를 정했다. 전북지역 입찰담당자도 단독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2015년 5월 경 입찰에 앞서 만나 각 분류별 낙찰자를 위해 다른 조합이 둘러리로 참가해주시기로 합의했다.

제주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각각

의 부찰수량을 담합했다.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당일 연락해 제주시조합은 48만7000㎡, 제주광역시조합은 43만㎡, 서귀포시조합은 43만㎡를 부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시장명령 부과와 함께 광주·전남 조합에 52억2800만원, 전북 39억7500만원, 제주에는 9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천호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 사무소장은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전북농협·익산군산축협
한우 번식우 사양관리
기술 교육·컨설팅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제도)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서종근)은 26일 익산시 여산면 농장에서 한우 번식우 번식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한우 번식우 사양관리 기술 교육·컨설팅으로 분반 후 어미소 및 송아지 관리, 번식우의 분반 전·후 질병관리, 우량송아지 선택요령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산기술을 보급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익산 군산, 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반력력 단축, 번식성적 개선을 위해 실시된 교육·컨설팅은 경영·사양·질병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강의와 농가 질문사항 등 자세한 설명으로 참석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축산물 수입증가, 규제·AI 등 악성 기축 전염병 빈번한 발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축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농가들은 "축산물 수입 확대,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 기축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번식우 사양 및 질병 관리, 송아지 생산 등 기술적으로 개선할 점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성철 전북우정청장, 초소형 전기차 운영의 개선사항 발굴 배달체형

전북지방우정청 김성철 청장은 26일 전주 시 완산구 삼전동 이안아파트와 세창짜깁이 아파트 등 1,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집배원 동행없이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해 통상우편물 배달체형을 했다.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통상우편물 배달체형은 책임직이 초소형 전기차를 운영하는 현업관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기차 운영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충돌 안전사고, 소포 우편물 과대적재 발생, 집배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배달수단이다"며, "이륜차에서 전기차로의 배달수단 변화는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뿐 아니라 우체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수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배달체형에 앞서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전주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집배원들과 일일이 격려하며 직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태 기자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정부 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정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 노동자에게 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20일 국회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노동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 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15일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수시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평일)을 공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다만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29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돼 약 15일의 유급공휴일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지역본부 나눔축산운동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용품 전달'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유제도), 순정축협(최기환 조합장), 고창부안축협(김대중 조합장)은 26일 순창군·고창군 관내 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나눔축산운동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나눔축산운동 행사는 농협에서 순창읍 소재 순창북중, 순창고를 방문 20명의 학생들에게 고급 운동화를 선물, 고창읍에서는 청소년 복지시설인 행복원을 방문, 에어컨, 선풍기, 생활용품 등 전체 6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순정축협조합장은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후원품을 마련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에너지가 전달되어 모두 크고 바르게 자라 미래의 기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부안축협조합장은 "앞으로도 축산업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축산업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창 행복원장은 "여름철을 맞아 무더위로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 걱정됐었는데 농협에서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



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축협 및 축산단체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기금을 조성, 조성된 기금은 불우 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3대째 이어온 60년 전통 이제 백화점에서 맛보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원조화심두부' 신규입점

롯데백화점전주점 6층 식당가에 28일 3대째 이어온 60년 전통의 지역 맛집 '원조화심두부'가 입점한다.

최근 롯데백화점전주점(식품관)은 경쟁력 있는 '지역 토종 브랜드를 발굴'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지역 맛집 유치를 위한 노력이 뜨거운 가운데, 원조화심두부 대표 권영선 할머니의 두부인생의 이야기가 지역민의 정서와 입맛에 잘 어울린다 판단,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조화점)이 직접 앞장서 입점을 추진하게 됐다.

'원조화심두부'는 60여년전 이웃과의 나눔과 배움을 위해 처음 내건 화심집 간판을 시작으로 식사가 가능한 양념된 두부를 개발과 개발을 거듭하여 원조 순두부찌개가 탄생했으며, 현재에도 알차고 고소한 맛을 따라 올 수 없고 계약 재배된 100% 우리콩과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고집스러운 전통의 방식을 지켜나가고 있다.

/김영태기자



대표메뉴로는 화심순두부, 화심고기순두부, 두부전이 있으며 6월28일부터 7월말까지 식사 후 두부요거트 1개씩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식품 박종진 선임파트리다는 "지속적인 지역 유명 맛집의 유치는 백화점과 지역 맛집 간 상생의 기반이 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 맛집들도 백화점 입점을 긍정적 검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 맛집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말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